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편찬과정과 체재*

윤 기 엽**

목 차

1. 다이쇼시대(大正時代)와 불교계
2.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의 편찬과정
 - 1) 신수대장경 편찬의 동기와 착수
 - 2) 다이쇼·쇼와기(大正·昭和期)의 『신수대장경』 편찬
3.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의 체재와 그 의미
4. 『신수대장경』 편찬의 학문 외적인 측면

요 약

일본 다이쇼시대(大正時代)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불교 교학연구와 전적(典籍)에 대한 편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가 주도하여 착수한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신수대장경』)이었다. 일본에서는 『신수대장경』의 편찬되기 전 이

* 이 글은 『韓國佛敎學』 48집(서울: 韓國佛敎學會, 2007)에 게재된 「일본 大正時代 佛敎界의 編纂事業」-『大正新修大藏經』의 편찬을 중심으로-를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혀둔다.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미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1)에 『대일본교정축각대장경(大日本校訂縮刻大藏經)』, 『대일본교정훈점대장경(大日本校訂訓點大藏經)』,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 등이 출간된 예가 있어서 『신수대장경』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대장경이 편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태였다.

『신수대장경』은 다카쿠스 준지로오(高楠順次郎, 1866~1945)가 중심이 되어 1923년(다이쇼12)에 착수되었고, 정장(正藏) 55권이 1929년(쇼와4)에, 속장(續藏) 30권이 1932년(쇼와7)에, 그리고 도상(圖像)과 총목록(總目錄) 15권이 1934년(쇼와9)에 간행되어 총 100권으로 완성되었다. 『신수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 중 최대 분량이고, 조직체재가 정연하고, 교정이 엄밀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 체재와 구성은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불전의 역사적 순서에 따르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수대장경』은 오늘까지도 학술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난 우수한 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편찬되던 시점에 일본불교계가 정부의 제국주의정책에 적극 호응한 시기였고, 편찬을 주도한 다카쿠스가 동양의 지도자론을 편 대표적인 불교학자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수대장경』이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1. 다이쇼시대(大正時代)와 불교계

일본 근대사에서 다이쇼시대(大正時代, 1912~1925)는 다이쇼천황(大正天皇) 일대 14년간으로¹⁾ 근대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부문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온 시기였다. 1914년(다이쇼3)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호황과 불황이 교차되면서 노동쟁의(勞動爭議), 소작쟁의(小作爭議)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社會主義運動)이 빈발하며 정치,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풍조가 파급되어 갔다. 다이쇼시대의 이러한 사조를 보통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 democracy)라고 한다.

다이쇼시대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를 타고 사상(思想), 문학(文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활기를 띠고 전개되었다. 철학

1) 다이쇼천황의 재위기간은 1912. 7. 30~1926. 12. 25일까지였다.

사상에서는 신칸트학파의 이상주의(理想主義)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문학에서는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바탕을 둔 백화파(白樺派)²⁾의 활동이 두드러졌다.³⁾ 이와 함께 불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면서 불교 관련 문예작품이 붐을 이루며 출간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신란(親鸞, 1173~1262), 호넨(法然, 1133~1212), 니치렌(日蓮, 1222~1282) 등과 같은 고승(高僧)과 관련된 작품이 많이 출간되었다. 이것은 민중의식의 발달에 따른 인간탐구와 백화파의 한 특색을 이루었던 천재주의(天才主義)⁴⁾의 경향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대에 많은 불교 문예작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자유주의적 분위기를 타고 대중문화가 보급, 확대되면서 출판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도 한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이쇼시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불교교학(佛敎敎學)의 연구와 불교 기초자료와 전적(典籍)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에 활기를 불어왔다. 이 같은 사업을 주도한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는 난조오 분유(南條文雄, 1849~1927), 모치즈키 신크우(望月信亨, 1869~1948),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正治, 1873~1949), 다카쿠스 준지로오(高楠順次郎, 1866~1945),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 1881~1930), 우이 하쿠주(宇井伯壽, 1882~1963) 등이었다. 그리고 가장 괄목할만한 불교전적 편찬사업이 바로『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편찬이었다.

2.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의 편찬과정

-
- 2) 1910년(메이지43) 4월에 창간된 『白樺』라는 잡지를 통해 인도주의적 문학활동을 펼칠 기회를 말한다. 대부분이 상류층의 고등교육기관인 學習院 출신이었다. 백화파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은 무샤노코지 사네아츠(武者小路實篤)였다.
 - 3)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다이쇼기의 사상적 상황』, 『근대일본사상사』(서울: 소명출판, 2006), p.279.
 - 4) 백화파의 천재에 대한 찬미이다. 천재는 인류의 의지에 지배되어 움직이는 자이고 사람들은 천재의 작품에 접하여 살아가는 즐거움을 얻고 생명을 충실히 하며 진지한 인생태도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근대일본사상사』(서울: 소명출판, 2006), pp.269~270.

1) 신수대장경 편찬의 동기와 착수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이하 『신수대장경』) 전 100권은 다카쿠스 준지로오(高楠順次郎, 1866~1945),⁵⁾ 와타나베 가이쿄쿠(渡邊海旭, 1872~1933),⁶⁾ 오노 겐묘(小野玄妙, 1883~1939),⁷⁾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불교학자들에 의해 1923년(다이쇼12)부터 1934년(쇼와9)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신수대장경』의 편찬은 1920년 경 다카쿠스 준지로오가 도쿄제국대(東京帝國大)에서 한역(漢譯) 경전과 팔리어(巴利語) 경전을 대조 연구하던 중에 계획되었다. 메이지시대에 간행된 대장경들이 당시 매우 고가(高價)인 관계로 많은 불교학자들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구래의 여러 대장경을 교정한 우수한 대장경 편찬이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다. 당시 다카쿠스의 연구실에 출입하고 있던 히가타 류우쇼우(干瀉龍祥), 와타나베 가이쿄쿠 등이 다카쿠스에게 새 대장경의 편찬을 강력히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카쿠스는 1922년(다이쇼11)에 학계의 요구와 의견을 고려하여 『대일본교정축각대장경(大日本校訂縮刻大藏經)』 혹은 『縮冊大藏經』에 장소(章疏), 기전(記傳), 비명(碑銘), 보유(補遺) 등을 추가해 개관할 것을 확정하고, 와타나베 가이쿄쿠, 오노 겐묘, 모치즈키 신코우(望月信亨, 1869~1948) 등 불교학계의 권위자와 함께 편

-
- 5) 1890년(25세)에 난쥬우 분유우(南條文雄)의 소개로 유럽에 유학을 가 그곳에서 인도학, 불교학의 연구에 종사했다. 1897년(32세)에 귀국해서는 주로 東京帝國大學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923년(58세)에 『신수대장경』의 편찬에 착수했다.
 - 6) 1900년(28세)에 오기하라 운라이(荻原雲來)와 함께 독일에 유학 가 비교종교학을 연구했다. 1910년(38세)에 귀국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하고 신계율주의를 제창했다. 1923년(51세)에 다카쿠스 준지로오와 함께 『신수대장경』 편찬에 착수했다.
 - 7) 1905년(23세)에 『佛敎年代考』를 출판했다. 1906년(24세)에 모치즈키 신코우(望月信亨)가 주재하는 『佛敎大辭典』 편찬에 참가했다. 1912년부터 시작된 『大日本佛敎全書』의 편집을 담당했다. 다카쿠스 준지로오를 知友로 얻어 『신수대장경』의 실질적인 편찬자로 활약했다. 『佛敎經典總論』이라는 대논문이 있고, 『道敎大藏經』과 『四庫全書』 편집을 계획하기도 했다.

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였다.⁸⁾ 다카쿠스는 대장경의 편찬을 결정하기 전 3가지 조건을 가장 숙고했다고 한다. 사업을 세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일본의 인도학계와 불교학계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⁹⁾

그리하여 다카쿠스는 1923년(다이쇼12) 1월부터 실제의 편집에 착수하게 되었고, 와타나베와 함께 도감(都監)이 되었고, 오노 겐묘를 편집주임으로 삼아 편찬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같은 해 4월 다이쇼일체경간행회(大正一切經刊行會)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분장과 책임자를 정하여 대장경 편찬에 착수하게 되었다.

- * 제1 校合所: 芝増上寺 閱藏亭
石川海淨, 千葉秀胤, 瀧野時支助, 中野義照, 松本徳明, 三明永無, 末永眞海, 和田徹城, 大塚道光, 安藤環中, 岸宏之, 小野光洋
- * 제2 校合所: 上野帝室博物館
山本快龍, 近藤隆晃, 西 義雄
- * 제3 校合所: 宮內省圖書寮
山崎精華, 坂本幸男, 潮留眞澄
- * 加點及原語註: 干瀉龍祥
- * 編纂排印:
菅原法嶺, 飯田眞一, 野崎慶昌, 八雲圓成, 魚津善法, 甲藤季雄, 山形清馨, 永 忠順, 掘尾順我, 金子融豊, 松本大俊
- * 編輯索隱: 小野玄妙
- * 敦煌寫經校合: 矢吹慶輝
- * 知恩院天平寫經校合: 藤堂祐範
- * 高野山麗藏校合: 水原堯榮, 蓮澤成淳
- * 編輯兼發行者: 高楠順次郎¹⁰⁾

8) 土屋詮教, 『大正佛教史』(東京: 三省堂, 1940), pp.163~164.

9) 渡邊煤雄, 『大正新修大藏經成立のいきさつ』, 『世界佛教』8卷 7號(東京: 世界佛教協會, 1953), p.85.

10) 武藏野女子學 佛教文化研究所編, 『雪頂 高楠順次郎の研究』その生涯と事蹟(東京:

대장경의 편집, 교정을 위해 도쿄의 시바 증상사(芝増上寺)에 제1교합소(校合所, 高麗·宋·元·明藏), 우에노공원 도쿄제실박물관(東京帝室博物館)에 제2교합소(正倉院聖語藏 隋唐古寫經·天平寫經), 궁내성도서실(宮内省圖書寮)에 제3교합소(舊宋藏 東禪寺版, 開元寺版)를 마련하였다.¹¹⁾ 1923년 4월 시바 증상사 열장정(閱藏亭)에서 고려 해인사판(高麗海印寺版)을 저본으로 하여 남송 사계법보사판(南宋思溪法寶寺版), 원 대보령사판(元大普寧寺版), 명 만력판(明萬曆版, 方冊本)을 대교하고 같은 해 5월에는 도쿄 제실박물관(東京帝室博物館)에서 정창원성어장(正倉院聖語藏)의 수당고사경(隋唐古寫經)과 천평고사경(天平古寫經)을 대교하였다.¹²⁾ 메이지시대의 『축책대장경』과 『만자장경(卍字藏經)』의 편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고려의 해인사판이 중요한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고려대장경』이 일본근대의 대장경 편찬에 미친 영향력이 어떠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1923년(다이쇼12) 『신수대장경』의 편찬이 착수되기 전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활자판의 대장경이 간행된 상태였다.

명 칭	시 기	분 량
大日本校訂縮刻大藏經(縮冊大藏經)	1880~1885년	40질 418책 1,916부 8,534권
大日本校訂藏經(卍字藏經)	1902~1905년	36투 347책 1,625부 7,082권
大日本續藏經(卍續藏經)	1905~1912년	150투 750책 1,660부 6,957권
大日本佛教全書	1912~1922년	151권
日本大藏經	1914~1921년	48권

大東出版社, 1979), p.85.

11) 후에 제4校合所(大和法隆寺勸學院)에서 俱舍唯識疏釋이 對校되고, 제5校合所(小石川關口臺大藏學院教經臺)에서 章,疏,宗典,史傳 등이 대교되었다. 그리고 敦煌古寫經(梵本,巴利本,西藏本)이 조사되었다. 『現代佛教』11月 特輯(東京: 大雄閣, 1928), pp.182~183 ; 田村晃祐, 『近代日本の佛教者たち』(東京: NHK出版, 2005), pp.269~270.

12) 土屋詮教, 『大正佛教史』(東京: 三省堂, 1940), p.164.

먼저 『대일본교정축각대장경』(『축책대장경』)은 교부성(敎部省) 사사국(社寺局)의 시마다 반콘(島田蕃根, 1827~1907)이 후쿠다 교오카이(福田行誠)의 지원을 얻어 1880년(메이지13) 4월에 시작하였다.¹³⁾ 그 정본(定本)과 교본(校本)에는 증상사(增上寺) 소장의 고려장(高麗藏, 海印寺版), 남송장(南宋藏, 思溪法寶寺版), 원장(元藏, 大普寧寺版)¹⁴⁾이 제공되었다. 도쿄 홍교서원(弘敎書院)에서 고려장을 정본으로 하여 송·원·명(宋·元·明) 3분을 대교하였다. 각 종(各宗)에서 선발된 60여 명의 교정자가 참여하여 1885년(메이지18) 7월에 완성하였다. 『축책대장경』은 메이지시대의 가장 권위 있는 대장경으로서 불교학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일본교정훈점대장경』(『만자장경』)은 1902년(메이지35)부터 1905년(메이지38)까지 교토(京都) 장경서원(藏經書院)에서 간행되었다.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 및 중국찬술의 주요 장소(章疏) 등을 실어 총 1,625부 7,082권이였다. 이 대장경은 마에다 예운(前田慧雲), 나카노 타슈(中野達慧)가 주재하고, 교토 법연원(法然院)의 닌초(忍徵)가 일본 황벽판(黃檗版, 明의 萬曆版 覆刻)에 의거해 고려판과 대교한 여명대교본(麗明對校本)을 정본으로 하여 출판하였다. 이 대장경에서 누락된 중국찬술 각종(各宗)의 장소와 선적(禪籍) 등은 『대일본속장경』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대일본속장경』(『만속장경』)은 『만자장경』을 이어서 보완한 대장경이다. 마에다 예운을 회장으로 하고, 나카노 타슈를 편집주임으로 하여 1905년(메이지38) 4월부터 1912년(다이쇼1)까지 교토 장경서원(藏經書院)에서 간행되었다. 이것의 구성은 모두 10부문으로 되어있어서 제1~4부문은 인도찬술(印度撰述)을 그리고 제5~10부문까지는 중국찬술(中國撰述)을 실어 총 1,660부(部) 6,957권(권)이였다. 주로 중국의 찬술서를 수록한 중국불교 총서였다. 특히 이 대장경의 편찬사업을 착수한 시점이 러일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13) 大藏會 編, 『大藏經: 成立と變遷』(京都: 百華苑, 1964), p.102.

14) 증상사 소장의 3藏은 모두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기증한 것으로 高麗藏과 元藏은 1609년(慶長14), 宋藏은 1703년(慶長18)년에 현상되었다. 미즈노 고겐 지음·이미령 옮김, 『경전의 성립과 전개』(서울: 시공사, 1996), pp.195~196.

것을 야스쿠니 기념사업(靖國記念事業)¹⁵⁾으로 삼아 매권 끝에 전사자(戰死者)의 성명을 기재하며 충혼(忠魂)을 조위(弔慰)하는 뜻을 나타냈다.¹⁶⁾ 이 대장경을 편찬한 또 다른 의도가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전사자의 영령을 애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05년(메이지38)부터 시작된 『만속장경』의 편찬사업은 『만자장경』을 보완한다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도 당시 불교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간 일련의 전쟁협력사업과 궤를 같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⁷⁾

다이쇼시대(大正時代)에 들어와 일본불교의 최대 자료집으로 평가되는 『대일본불교전서(大日本佛教全書)』 편찬이 1912년(다이쇼1)에 착수되었다. 이 작업은 모치즈키 신코우가 『불교대사전』을 편찬하던 중 사전편집의 참고자료와 간행자금을 얻고자 한 의도에서 착수하였다고 한다. 1911년(메이지44)에 다카쿠스 준지로오, 오무라 세이가이(大村西崖), 모치즈키 신코우 등에 의해 불서간행회(佛書刊行會)가 설치되고, 난조오 분유(南條文雄)를 회장으로 하여 다음 해인 1912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 약 10년에 걸쳐 1922년(다이쇼11)에 본편 151권으로 완성되었다. 이것은 일본불교의 교리, 역사, 문학 등을 망라한 일본찬술의 불교총서(佛教叢書)였다.

그리고 『일본대장경(日本大藏經)』(48권)의 편찬이 1914년(다이쇼3)에 시작되어 1921년(다이쇼10)에 완성되었다. 메이지시기에 몇 차례에 걸쳐 대장경이 편찬되었지만 일본불교 입장에서 볼 때 그것만으로는 일본불교 전체를 통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¹⁸⁾ 마쓰모토(松本文三郎) 박사를 편찬회장으로 하여 『일본대장경』의 편찬이 기획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일본찬술의 경전 주석서와 여러 종(宗)의 종전(宗典)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교리

15) 대일본속장경 앞에 靖國記念事業을 명기하였다.

16) 『望月佛教大辭典』제4권(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66), p.3348.

17) 1904년(메이지37) 5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이때 제3회 宗教家懇談會(戰時宗教家懇談會)가 개최되어 神道, 佛教, 그리스도교 측에서 참가하여 이 전쟁이 정의와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柏原祐泉, 『日本佛教史 近代』(東京: 吉川弘文館, 1998), pp.148~149 ; p.165.

18) 松本文三郎, 『日本大藏經序』, 『日本大藏經』(日本大藏經編纂會: 東京, 1921), p.5.

관계의 찬술서를 수록하였다.

일본불교계에는 이상과 같은 불전 편찬사업을 바탕으로 하여『신수대장경』과 같은 보다 방대하고 체계적인 대장경의 편찬이 시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태였다.

2) 다이쇼·쇼와기(大正·昭和期)의『신수대장경』편찬

(1) 정장(正藏) 55권 완성

1923년(다이쇼12) 가을에 『신수대장경』 제1권을 출판할 예정에 있었지만 이해 9월 1일 관동(關東) 대지진이 발생하여 사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대지진으로 발행소인 신광소(新光社)가 전소됨에 따라 사업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된 다카쿠스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저택 내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여 일을 계속 진행시켰다. 1924년(다이쇼13) 5월에 제1권 아함부(阿含部)가 발행소 다이쇼 일체경간행회(大正一切經刊行會)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매월 1권씩 간행되어 1928년(쇼와3) 11월에 제55권 목록부(目錄部)가 발행되어 정장(正藏) 총 2,276부 9,041권 55책이 완료되었다. 이것의 판식(版式)은 46배판 5호활자 3단(段), 1단 29행(行), 1행 17자(字)였고 난 아래에 이본자(異本字), 고유명사의 범어 또는 팔리어를 각각 주기(註記)하였다. 정장 55책의 완간은 일본 국내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1929년(쇼와4) 5월 프랑스 학사원(學士院)은 그 위업을 칭송하며 주리양상을 수여했다.¹⁹⁾

(2) 정·속장(正·續藏) 85권 완성

정장(正藏)이 완료된 후 1929년(쇼와4) 9월부터 속장(續藏)의 편찬, 간행에 착수하여²⁰⁾ 1932년(쇼와7) 2월에 제85권 고일의사부(古逸疑似部)의 간행으로

19) 武藏野女子學 佛教文化研究所編, 『雪頂 高楠順次郎の研究』その生涯と事蹟(東京: 大東出版社, 1979), p.85.

20) 小野玄妙, 『刊行經過要略』, 『大正新修大藏經總目錄』(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31), p.6. 당시의 계획으로는 일본찬술의 章疏, 宗典, 圖像 등을 위주로 燉煌, 한국, 일본 내에서 새로 발견된 古逸章疏를 추가해 총 18책을 續補할 예정이

속장 30권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정속장(正續藏) 총 3,053부 11,970권 85책이 10년 만에(1923~1932년) 완성된 것이다. 이때 기관잡지 『현대불교(現代佛敎)』²¹⁾(쇼와7년 통권91호)에서는 『신수대장경』의 완성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축사를 게재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했다.

당시 다카쿠스(高楠)는 방대한 85책 12,000권의 대장경을 일본 정신계에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된 이 일은 실로 대사업(大事業)이면서도 난사업(難事業)이었다고 회고했다. 그가 대장경 편찬 과정 중에 있었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움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며 그간의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작 다카쿠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무일푼으로서 평생 동안 지불해도 갚기 힘든 거금의 부채뿐이라고 하며 이 일에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였는가를 드러내기도 했다.²²⁾ 다음 해 1933년(쇼와8) 1월 25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대장경 완성의 공적을 기리고 일본문화에 공헌한 점을 기념하여 상패와 상금 2,000만엔을 시상했다. 그러나 다카쿠스와 함께 대장경편찬의 도감(都監)을 맡았던 와타나베 가이쿄쿠(渡邊海旭)는 중병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다음 날 1월 26일 오전8시에 숨을 거두었다.²³⁾

(3) 『신수대장경』100권 완성

이상의 정속장(正續藏) 85권에 도상(圖像) 12권과 총목록(總目錄, 昭和法寶總目錄) 3권이 더해져²⁴⁾ 총 3,493부 13,520권 100책의 『신수대장경』이 최종 완성된 것은 1934년(쇼와9년) 11월이었다. 『신수대장경』의 편찬사업이 다이

었다고 한다.

21) 『大正新修大藏經』의 기관잡지로서 1924년(다이쇼13) 5월에 창간하여 1938년(쇼와13) 3월까지 137호를 발간했다.

22) 高楠順次郎, 「大正一切經의 完成」, 『現代佛敎』通卷 91號(東京: 大雄閣, 1932), pp.130~132 참조.

23) 鷹谷俊之, 『高楠順次郎先生傳』(東京: 武藏野女子學院, 1955), p.72.

24) 총목록 중 제1권은 1929년(쇼와4) 7월에 제2권은 1929년 4월에 발행되었고, 마지막 제3권이 1934년(쇼와9) 11월에 발행되었다.

쇼말(大正末)에 착수된 관계로 다이쇼시대에는 20권만이 간행되고(1924. 5~1925. 12),²⁵⁾ 나머지 80권은 쇼와시대에 간행되었던 것이다(1926. 1~1934. 11).

『신수대장장경』이 완간된 후 일본학자들 스스로가 이것을 세계학계의 일대금자탑으로 평가하거나 세계인도학계(世界印度學界)와 불교학계의 표준 텍스트로 자부하고²⁶⁾ 또 일본만이 아닌 세계문화를 위한 사업으로 간주한 데에는 『신수대장경』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이었다. 하나야마 신쇼(花山信勝)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²⁷⁾

- ① 학술적 입장에 있어서 편수하였다. 중국에서 보이는 왕명에 의한 편찬과는 달리 학술연구의 목적을 띠었다.
- ② 최대량의 불서대장(佛書大藏)이다. 정장(正藏) 55권, 속장(續藏) 30권은 이전 『축책대장경』의 대부분, 『일본대장경』과 『대일본불교전서』의 절반, 새롭게 발견된 고일서(古逸書), 일본 각 종(各宗) 조사(祖師)의 저술을 모두 담고 있다.
- ③ 조직이 정연(整然)하다. 정속장(正續藏) 85권의 체재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었다. 『신수대장경』의 조직 체재는 이전의 경전분류법에 의한 것과는 달리 매우 새롭고 합리적이다.
- ④ 체재(體裁)를 시대에 맞게 하였다. 양장(洋裝)과 화장(和裝) 2종류를 사용하고, 46배판 5호 활자 3단의 체재이다.
- ⑤ 교정이 엄밀하다. 메이지시대의 가장 권위 있는 대장경인 『축책대장경』이 4대장경(고려·송·원·명장)을 대교한 것인데, 『신수대장경』은 이것에 더하여 정창원(正倉院)의 천평고사경(天平古寫經), 궁내성도서료(宮内省圖書寮)의 구송판일체경(舊宋版一切經), 중국 돈황천불동(敦煌千佛洞)의 육조고사경(六朝古寫經), 명산거찰의 귀중본, 『일본대장

25) 『新修大藏經』제1권 阿含部上~제17권 經集部4, 제23권 律部2, 제31권 瑜伽部下, 제32권 論集部. 『現代佛教』11月 特輯(東京: 大雄閣, 1928), pp.130~132 참조

26) 渡邊煤雄, 「大正新修大藏經成立のいきさつ」, 『世界佛教』8卷 7號(東京: 世界佛教協會, 1953), p.82.

27) 花山信勝, 「大正新修大藏經의 眞價」, 『現代佛教』通卷91號(東京: 大雄閣, 1932), pp.33~36. ; 「大正新修大藏經의 眞價」, 『現代佛教』91號, 昭和7年, 33~36쪽.

경』과 『대일본불교전서』에 수록된 여러 본을 폭넓게 대교했다.

⑥ 가점(加點)에 권위가 있다. 중요한 경전(經典), 율전(律典), 논전(論典), 장소(章疏), 종전(宗典), 사전(史傳) 등에 구두점과 훈독점(訓讀點)을 찍어 이전의 대장경에 비해 진보되고 해독이 매우 쉬워졌다.

⑦ 범어, 팔리어 원전과 대교(對校)하였다. 경명(經名), 품명(品名), 고유명사, 학술어 등에 로마자로 원어를 주기하여 학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

⑧ 새로 발견된 귀중서를 실었다. 돈황에서 발견된 고일경류(古逸經類)를 비롯하여 조선, 일본의 고사원(古寺院)에서 발견된 진귀한 서적을 담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히가타 류우쇼우(干瀉龍祥)에 의해 엄정(嚴正)한 교정의 문제, ② 역전(譯傳)의 문제, ③ 새로운 자료 발견의 필요성 ④ 내용해설 목록의 제작과 외국 번역의 출판 등²⁸⁾ 앞으로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발행 시기와 분량

	발행 연도	분 량
正藏(55책)	1924년 5월~1928년 11월	2,276부 9,041권
續藏(30책)	1929년 9월~1932년 2월	777부 2,929권
圖像·總目錄(15책)	1929년 4월~1934년 11월	440부 1,550권
		총 3,493부 13,520권

* 정장+속장: 3,053부 11,970권

3.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의 체제와 그 의미

『신수대장경』 전 100권은 정장(正藏, 55권), 속장(續藏, 30권), 도상(圖像,

28) 『與えられた問題』, 『現代佛教』91號, 昭和7年, 23-31쪽.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편찬과정과 체재(윤기엽)

12권), 총목록(總目錄, 3권)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의 구성 체재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장은 크게 인도찬술의 경(經), 율(律), 론(論) 32권과 중국, 한국, 일본찬술의 소(疏), 종(宗), 사전(史傳), 사취(事彙), 외교(外教), 목록(目錄) 23권으로 구성되었다. 양적인 면에서 정장 55권은 2,276부 9,041권을 수록하고 있어서 당시까지 최대의 대장경이었던 메이지시대의 『대일본교정축각대장경』(『축책대장경』) 1,916부 8,534권을 능가하고, 대표적 경전목록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²⁹⁾의 1,076부 5,048권에도 거의 2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정장의 구성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 正藏 > 55권

구분	부문	권 차례	종 류
經 (21권)	阿舍部	1~2권	長阿含經類, 中阿含經類, 雜阿含經類, 增一阿含經類
	本然部	3~4권	本生經類, 本起經類, 因緣經類, 譬喻經類
	般若部	5~8권	
	法華部	9권	
	華嚴部	9~10권	
	寶積部	11~12권	
	涅槃部	12권	
	大集部	13권	
	經集部	14~17권	諸佛經類, 佛名經類, 藥師經類, 彌勒經類, 文殊經類, 維摩經類, 諸菩薩經類, 諸比丘經類, 諸國王經類, 諸長者經類, 諸女人經類, 諸梵志經類, 諸天經類, 諸龍王經類, 禪經類, 三昧經類, 諸法

29) 唐 智昇이 730년(開元18)에 편찬한 불교경전 목록이다. 당시 현존하는 경전 1,076부 5,048권을 大小乘의 經, 律, 論, 聖賢集으로 분류하여 작성했다.

30) 小野玄妙, 『刊行經過要略』, 『大正新修大藏經總目錄』(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31) 참조.

전자불전 제10집(2008)

			無行經類, 瓔珞經類, 金光明經類, 如來藏經類, 楞伽經類, 深密經類, 福田經類, 緣生經類, 業道經類, 名數經類, 數珠經等類, 諸雜經類,
	密教部	18~21권	大日經類, 金剛頂經類, 蘇悉地經類, 讀摩軌等類, 受戒法類, 諸佛軌類, 諸佛頂軌類, 諸經軌類, 諸觀音軌類, 諸菩薩軌類, 文殊軌類, 諸明王軌類, 諸天等軌類, 諸陀羅尼經類
律 (3권)	律部	22~24권	彌沙塞類, 大衆律類, 四分律類, 有部律類, 飲光律類, 正量律類, 上座部律類, 雜律類, 菩薩戒類,
論 (8권)	釋經論部	25~26권	阿含經釋類, 般若經釋類, 法華經釋類, 華嚴經釋類, 寶積經釋類, 涅槃經釋類, 諸經釋類
	毘曇部	26~29권	六足論類, 發智婆沙論類, 諸毘曇類, 俱舍論類
	中觀部	30권	
	瑜伽部	30~31권	瑜伽論類, 唯識論類, 攝大乘論類, 中邊論類, 顯揚論等類
	論集部	32권	因明論類, 入大乘論等類, 外道四宗論類, 立世論等類, 成實論等類, 菩提心論等類, 起信論類, 印度撰述雜類
疏 (12권)	經疏部	33~39권	阿含部經疏類, 般若部經疏類, 法華部經疏類, 華嚴部經疏類, 寶積部經疏類, 涅槃部經疏類, 經集部經疏類, 密教部經疏類
	律疏部	40권	四分律疏類, 菩薩戒疏類
	論疏部	40~44권	釋經論部論疏類, 毘曇部論疏類, 中觀部論疏類, 瑜伽部論疏類, 論集部論疏類
宗 (4권)	諸宗部	44~48권	中觀部類, 瑜伽部類, 華嚴部類, 律部類, 法華部類, 密教部類, 淨土宗類, 禪宗類
史傳 (4권)	史傳部	49~52권	通紀類, 別傳類, 叢傳類, 紀行類, 寺山地志類, 護教類
事彙 (1권)	事彙部	53~54권	雜撰類, 音義類, 悉曇類
外教 (1권)	外教部	54권	
目錄 (1권)	目錄部	55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신수대장경』의 정장(正藏)은 실제로 아함부에서 목록부까지 총 24부(部)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크게 경, 율, 론, 소, 종, 사전, 사회, 외교, 목록 9부분으로 묶을 수 있다. 경(經)은 아함(阿含), 본연(本然), 반야(般若), 법화(法華), 화엄(華嚴), 보적(寶積), 열반(涅槃), 대집(大集), 경집(經集), 밀교(密敎)의 순서로 율(律)은 소승율(小乘律)에서 대승율(大乘律)로 논(論)은 석경론(釋經), 비담(毘曇), 중관(中觀), 유가(瑜伽), 논집(論集)의 순서로 하고 소(疏)는 경소(經疏), 율소(律疏), 논소(論疏)로 나누고 다시 경소는 아함(阿含), 반야(般若), 법화(法華), 화엄(華嚴), 보적(寶積), 열반(涅槃), 경집(經集), 밀교(密敎)로, 율소는 사분율소(四分律疏)에서 보살계소(菩薩戒疏)로, 논소는 석경(釋經), 비담(毘曇), 중관(中觀), 유가(瑜伽), 논집(論集)의 순서로 하였다. 그리고 종(宗)은 지론종(地論宗), 삼론종(三論宗), 법상종(法相宗), 화엄종(華嚴宗), 율종(律宗), 천태종(天台宗), 밀종(密宗), 정토종(淨土宗), 선종(禪宗) 등 8종을 역사적 순서로 하였고, 사전(史傳)은 인도, 중국, 한국의 각 통기(通紀), 별전(別傳), 총전(叢傳), 기행(紀行), 사산지지(寺山地志), 호법류(護法類)를 사회(事彙)는 잡찬(雜撰), 음의(音義), 실담류(悉曇類)의 글을 실었다.³¹⁾

이러한 정장의 조직체재는 『개원석교록』이래의 전통적인 분류가 아니라 경전의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서³²⁾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류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방식은 메이지시절 이후 서양의 근대학문을 수용하면서 성립된 근대불교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찬술에 해당하는 불전 대부분은 목록부(目錄部)에 실려 있는데,³³⁾ 이

31) 花山信勝, 『大正新修大藏經의 眞價』, 『現代佛敎』通卷 91號(東京: 大雄閣, 1932), pp.33~34 ; 小野玄妙, 『刊行經過要略』, 『大正新修大藏經總目錄』(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31), pp.23~31 참조

32) 미즈노 고겐 지음·이미령 옮김, 『경전의 성립과 전개』(서울: 시공사, 1996), pp.197.

33) 목록부에는 중국, 한국, 일본찬술 중 일본의 것은 26편이다. 한국찬술로는 고려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이 유일하다.

것은 정장을 이어 속간된 속장(續藏) 속에 일본찬술의 불전만을 따로 모아 실기 위해서였다. 속장의 구성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續藏 > 30권

구분	부문	권 차례	종류
續疏 (14권)	續經疏部	56~61권	般若部經疏類, 法華部經疏類, 華嚴部經疏類, 寶積部經疏類, 經集部經疏類, 密教部經疏類
	續律疏部	62권	
	續論疏部	63~70권	毘曇部論疏類, 中觀部論疏類, 瑜伽部論疏類, 論集部論疏類
續諸宗 (15권)	續諸宗部	70~84권	三論宗, 法相宗, 華嚴宗, 眞言律宗, 天台宗, 眞言宗, 臨濟宗, 曹洞宗, 黃檗宗, 淨土宗, 眞宗, 融通念佛宗, 時宗, 淨土雜部類, 日蓮宗
悉曇	悉曇部	84권	
古逸疑似 (1권)	古逸部 疑似部	85권	經疏部類, 律疏部類, 論疏部類, 諸宗部類, 雜記部類

속장은 크게 속소(續疏), 속제종(續諸宗), 실담(悉曇), 고일의사(古逸疑似)로 구분된다. 속소(14권)는 속경소부(續經疏部), 속율소부(續律疏部), 속론소부(續論疏部)로 나누어지고 속경소부에서는 승만(勝鬘), 유마(維摩), 법화(法華), 금광명(金光明), 반야(般若), 화엄(華嚴), 정토(淨土), 밀(密)의 순서로 하고, 속율소부에서는 범망(梵網)을 속론소부에서는 구사(俱舍), 중관(中觀), 유가(瑜伽), 논집(論集)의 순서로 하였다. 속제종부(15권)는 종의 역사적 순서를 참작하여 삼론종(三論宗), 법상종(法相宗), 화엄종(華嚴宗), 율종(律宗), 천태종(天台宗), 진언종(眞言宗), 임제종(臨濟宗), 조동종(曹洞宗), 황벽종(黃檗宗), 정토종(淨土宗), 서산종(西山宗), 진종(眞宗), 융통염불종(融通念佛宗), 시종(時宗), 일련종(日蓮宗)의 순으로 하였다.³⁴⁾

그리고 마지막 고일의사부(1권)는 20세기 초에 새로 발견된 돈황본(敦煌

34) 悉曇部 전체는 續諸宗部 마지막 권(제15권)에 함께 실렸다.

本) 문헌을 담고 있는데, 고일부(古逸部)에서는 경소(經疏), 율소(律疏), 논소(論疏), 제종(諸宗), 잡기류(雜記類)의 순으로 실었다.³⁵⁾ 속장편에 돈황본의 불전이 수록된 데에는 페이지말에 서본원사(西本願寺)의 법주(法主)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가 조직한 탐사대에 의해 중국 돈황 일대의 불교유적이 3차례에 걸쳐 조사, 발굴된 후 돈황문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타니 탐사대가 당시 반출해 간 대량의 돈황문물은 일본 류코쿠대(龍谷大), 여순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현 서울박물관)에 소장되었고, 일부 유물에 대해서는 이미 1915년(다이쇼4)에 『서역고고도보(西域考古圖譜)』(2책)로 편집 출판되었다.³⁶⁾

이와 같이 구성된 속장(30권)은 고일의사부(1권)를 제외한 모두가 일본찬술의 불교문헌이어서 『신수대장경』이 메이지시대의 다른 총서보다도 월등히 많은 분량의 일본불전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근대에 들어와 일본찬술의 불전을 대장경(大藏經, 一切經) 속에 넣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인 스스로가 불교에 있어서 자국이 인도, 중국 등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신수대장경』의 속장은 다이쇼시대에 간행된 『대일본불교전서』(1912~1922년), 『일본대장경』(1914~1921년)에 비해 한층 보강된 일본불교총서로서 국가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편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총 100권으로 구성된 『신수대장경』에서 일본찬술의 불전을 따로 분류하여 속장(30권)편에 실은 것도 당시 일본불교의 국가주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상(圖像)과 총목록(總目錄)은 『신수대장경』의 정장과 속장에 부가된 부록편에 해당한다.

35) 花山信勝, 「大正新修大藏經의 眞價」, 『現代佛敎』通卷 91號(東京: 大雄閣, 1932), pp.33~34; 花山信勝, 「大正新修大藏經續編參考目錄」, 『現代佛敎』通卷 91號(東京: 大雄閣, 1932), pp.38~55; 小野玄妙, 「刊行經過要略」, 『大正新修大藏經總目錄』(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31), pp.23~31 참조.

36) 유진보 지음·전인초 역주, 『돈황학이란 무엇인가』(서울: 아카넷, 2003), pp.315~318. 오타니 탐사대의 제1차 탐사는 1902년 8월~1904년, 제2차 탐사는 1908년 6월~1909년 11월, 제3차 탐사는 1910년 10월~1914년 2월까지였다.

< 부록 > 15권

구 분	부 문	권 차례	
부록 (15권)	圖像	별권(86~97권)	
	昭和法寶總目錄	별권(98~100권)	

도상 12권 363부는 각종 만다라, 불상, 보살상 등을 수록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총목록은 쇼와법보총목록(昭和法寶總目錄, 3권)으로서 『신수대장경』의 총목록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역대 대장경의 목록과 각종 목록 총 77부를 수록하였다.

4. 『신수대장경』편찬의 학문 외적인 측면

『신수대장경』이 편찬된 시기인 다이쇼말(大正末), 쇼와초(昭和初)의 일본은 국가주의(nationalism)가 날로 고조되어 가던 시기로서 불교계가 국가주의 노선에 적극 편승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메이지후기에 강력한 제국주의정책을 추진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만과 조선 등을 식민지화 했고 다이쇼시대에는 비록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두와 함께 제국주의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하였지만³⁷⁾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과 중국에 대한 21개조의 요구, 시베리아 출병과 같은 대륙침략에서 나타나듯이 군부세력에 의한 제국주의 노선은 한층 강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그리고 1928년(쇼와3) 6월 일본 관동군(關東軍)은 만주를 점령하기 위해 만주군벌(滿洲軍閥) 장작림(張作霖)을 폭살시켰고, 1931년

37) 몇 가지 예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적인 사상가 요시노 사꾸조(吉野作造)는 조선의 식민지정책을 비판하는 ‘조선통치의 개혁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의 연설을 하였고, 야나이(矢內忠雄)는 ‘조선의 통치방침’(『중앙공론』1926년 6월호)을 통해 3.1운동은 조선민중의 승리라고 하였다. 구건서, 『일본민족주의사』(서울: 논형, 2004), p.332.

(쇼와6) 9월 남만철도를 폭파하며 남만주 일대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키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군국주의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쇼와 초기 군국주의의 대두는 국가주의를 한층 더 고조시켜 가며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불교계에서는 일련주의(日蓮主義)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우익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다나카 지가쿠(田中智學)의 국주회(1914, 1884년의 立正安國會), 혼다 닛쇼(本多日生)의 천청회(天晴會, 1909), 자경회(自慶會, 1918), 국본회(國本會, 1928) 등에 의한 일련주의운동(日蓮主義運動)과 일련주의자(日蓮主義者) 깃다 잇키(北一輝, 1883~1937),³⁸⁾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 1886~1967),³⁹⁾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1886~1949)⁴⁰⁾ 등의 우익활동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불교계는 대외전쟁을 통해서 국가주의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불교계 각 종파는 전쟁터에 종군승(從軍僧)을 파견하여 일본군대를 위문하고 포교에 나섰는데, 진종 대곡파(眞宗大谷派)의 경우 청일전쟁 때 종군포교를 육군성(陸軍省)에 신청하고 승려들은 화장인부(火葬人夫)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다.⁴¹⁾ 그런가 하면 1912년(다이쇼1) 2월 불교계는 정부의 주선으로 신도(神道), 기독교와 함께 회동하여 국민도덕의 진흥을 꾀하고, 국운의 신장에 도움을 주기로 결의했다(3교회동).⁴²⁾

38) 1916년(다이쇼5) 『日本改造法案大綱』을 통해 天皇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改造할 것과 일본의 아시아 盟主論을 폈다. 이것은 1936년(쇼와11) 2.26사건을 일으킨 육군 皇道派에게 큰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39) 극단적 우익활동을 편 인물로서 1932년(쇼와7) 2월 총재 후보 이노우에 준노케(井上準之助)를 암살한 血盟團사건의 지도자였다. 같은 해 5월 재벌 團琢磨가 역시 혈맹단원에게 암살되었다.

40) 1931년 滿洲事變을 일으킨 주역으로 日蓮主義에 기초하여 침략전쟁을 통한 일본 중심의 아시아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1940년(쇼와15) 전쟁의 역사와 日蓮의 예언을 결합하여 『세계최종전쟁론』을 썼다.

41) 林淳, 「日本の國家主義と佛教—近代日本の佛敎學とナショナリズム—」, 『한중일삼국의 근대화와 불교』(서울: 동국대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세미나 학술대회, 2007), pp.98~99.

42) 土屋詮教, 「佛敎徒大會와 三敎會同 및 傳道」, 『明治佛敎史』(東京: 三省堂, 1939),

그러므로 『신수대장경』이 편찬되던 기간을 전후한 시점에 이상과 같은 정치적 현실과 이에 따른 불교계의 국가주의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하나야마 신쇼가 첫 번째로 언급한 『신수대장경』의 편찬이 순수한 학술적 입장에 의해서 편수되었다고 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메이지시기의 『대일본속장경』이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한 의도에서 간행된 선행이 있고, 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 후 일본이 동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동양의 지도자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불교학자가 다카쿠스 준지로오(高楠順次郎)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 동양의 지도자론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 제창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침략전쟁의 정당화에 기여하기도 했다.⁴³⁾ 다카쿠스가 『신수대장경』의 편찬은 반드시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면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승리한 이후 제국주의의 열기 속에서 일본이 근대화 성공한 동양의 유일한 국가이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도 대등한 수준의 문명국이 되었다는 민족적 자만심과 자존심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23~1934년(다이쇼 12~쇼와9)에 걸쳐 이룩된 『신수대장경』의 완성을 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불교학자들의 학문적 목적과 순수한 열정의 소산으로만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엄존하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제어: 다이쇼시대(大正時代), 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다카쿠스 준지로오(高楠順次郎), 국가주의(國家主義)

“一、吾等は 各々基教義を發揮し 皇運を扶翼し 益々國民道德の振興を圖らん事を期す。一、吾等は 當局者が宗教を尊重し 政治 宗教及 び教育の間を融和し 國運の伸張に資 せられんことを望三む。” 1912년 三教會同 전에 삼교는 1896년(메이지29) 9월, 1897년(메이지30) 4월, 1904년(메이지37) 5월 등 3회에 걸친 宗教家懇談會가 있었다. 특히 제3회의 간담회는 對外戰爭(러일전쟁) 지지를 위한 國論統一의 모임이었다.

43) 林淳, 앞의 글, 2007, p.100.